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현식 권사 김명희 권사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대입 수능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24.11.14(목)

고세훈, 고지후, 구진모, 박찬혁, 서윤지, 성윤지, 유리현
이한나, 정수아, 주하람, 황준희

[기도제목]

- 수험생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일상 생활을 하는 모든 시간,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수험 기간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 되게 하소서
-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소서

3 매일아침예배 차량운행

매일아침예배 차량운행이 필요한 성도님은 속장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10월호

개인 큐티 및 매일아침예배 말씀 묵상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아침예배 오전 5:30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묵상노트를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묵상노트를 활용해 주세요.
되도록 현장예배 참석을 권합니다
기도의 연합을 통해 개인의 삶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사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봉선목사
익산벧엘교회 미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1부 채금희 권사

대표기도

2부 주진범 장로

성경

사도행전 18:1-11(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임마누엘찬양대

그만두고 싶은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영광목사

*봉헌과결단

너는 내 아들이라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9/29 1부 추영숙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10/6 1부 하종강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느헤미야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수요전도] 오후 1:00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00

[속회예배] 목~토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오 신실 하신 주



말씀_사도행전 18:1-11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으로, 황제 글라우디오의 칙령으로 고린도로 추방된 사람들 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바울도 천막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바울의 선교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랜 선교여행과 잦은 핍박으로 인해 궁핍했습니다.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였고, 이 때 데살로니가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보내주어 바울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살전3:7-8)

바울의 고린도사역은 1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고린도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도시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해졌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크게 발달해 영적으로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가정예배

이런 생활 양상과 문화는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고,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바울에게 큰 부담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힘들어하던 바울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9절 ~10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놀린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로 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치고 힘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기까지 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 삶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넉넉한 힘을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나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나누어봅시다. 그 때, 무엇을 붙잡았나요?
- 2)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바울과 같이 사명을 결단 합시다.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현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